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해석의 의미 : 판독, 진단과 치료로 나아가는 출발

여 한 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boyzone07@yonsei.ac.kr



〈편집자 주〉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면허체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X-ray, 초음파 등을 사용하여 진단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 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한방측은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았고 의료기기 자체는 현대과학의 산 물이므로 중립적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과, 기기에서 나온 정보를 해석하고 치료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 논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판독'의 의의, 진단 및 치료와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한 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쟁의 시작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는 점차 소멸되어가고 의사들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주장함에도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으로만 판단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옳은’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17년 9월 국회에서는 비상식적인 법안이 발의되었다.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었다. 쉽게 말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X-ray, CT 등)을 허가하는 법안이며 이에 더해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관련 조항까지 담겨 있다.

이 법안을 두고 대한한 의사협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 모두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떠한 주장을 펼치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후 맥락 어디를 살피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담겨있지 않다. 그들의 주장에는 의과의료기기의 사용만 있을 뿐, 기기를 사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기본소양과 검사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검사결과를 책임 질 수 있다는 의지는 전무하다. 오히려 의사들이 그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이유가 단순히 이익관계에 얽혀있다고 언론을 통해 호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은 ‘우리도 잠깐 배웠으니 쓸 수 있다!’고 주장할만한 무책임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간의 영역싸움, 이익을 위한 다툼이 아니라, 얼마나 국민건강을 기만한 이기적인 발로인지 밝히려고 한다.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은
‘우리도 잠깐 배웠으니 쓸 수 있다!’고
주장할만한 무책임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는 점차 소멸되어가고
의사들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주장함에도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으로만
판단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옳은’ 이야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의 출발점이 다른 한의학과 의학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언어가 다르고 인체장기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 의학은 실증과 과학적 방법에 기반을 둔 근거중심의학이자 정통의학이다. 반면 한의학은 전통의학으로 동양적 자연철학에 근거하여 인체를 소우주로 바라보고 음양오행 원리로 해석하는 관념의학이다. 이는 곧 의학의 비주류에 속하며 보완대체의학으로 불리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적하여 병인을 제거하는 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음양의 전체적인 조화를 강조하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병소의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의과의료기기는 현대과학을 통해 만들어져 현대 의학을 위해 쓰이는 기기를 말한다. 만에 하나 의과의료기기를 한의학에 응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한의학의 이론과 진단이 의과의료기기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바탕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행해온 그들의 학문적 원리가 한계점에 이르러 잘못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다.

어떤 부위에 통증이 발생했다면, 의학은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분류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다른 진단명을 배제하는 형태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이때에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여러 검사들 중 어떤 진단기기를 우선 이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의학과 한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하는 방식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지 확인 할 수 있다.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학의 전문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영상 검사 중 ‘판독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면 누구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의과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현대의학을 위한 도구인 수학, 물리, 생물을 필수로 익히게 된다. 그 후 정상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를 위해 생리학, 해부학, 조직학, 병리학, 약리학

의학과 한의학은 인간의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하는 방식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논리인가. 학문의 출발점부터 다른데, 학생 때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자만의 결과이다.

등의 기초의학과목들을 배운다. 그 후에는 영상의학과목은 물론 각 임상과목마다 등장하는 질병들의 병태생리와 검사와 진단, 치료법을 배우기 위해 각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영상학적 소견들을 세부적으로 배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2년간의 병원 실습을 통해 실제 환자를 접하고 지난 기간 동안 배웠던 총체적인 의학지식을 통해 ‘실제 임상’을 배우게 된다. 즉 국소적인 상태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판독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가 공인하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영상검사의 시행을 환자에게 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고, 의과의료기기를 포함한 여러 검사들을 통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 후에도 영상을 판독하는 지식을 배우기 위한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연간 수만 건 이상의 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의 반복된 수련을 통해 의대생 때 배웠던 각 검사의 물리학적 원리, 해부, 병리, 생리학적 지식을 곱씹어 판독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이처럼 혹독한 과정의 수련을 거치기에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고 할지라도,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신뢰하기에 그들에게 판독을 의뢰하여 확실한 판독결과를 얻는 것이 의사들 사이에서는 불문율로 되어있다.

이처럼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상의 판독은 혹독한 교육과 반복된 수련을 통해 얻게 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의 출발점부터 다른데, 학생 때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자만의 결과이다.



의과의료기기가 잘못 사용 되었을 때 돌아오는 환자의 피해

실제로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환자들의 안전에 큰 문제가 될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본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환자의 질병을 맡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인 처사이다.

이해하기 쉽게 골절과 X-ray 사진을 예로 들어보자. X-ray 사진을 보게 될 때 똑 부러져 어긋나있는 골절은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정도로 다친 환자는 애초에 한의원을 찾지 않는다.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환자들이 이렇게 눈에 띄게 확연한 병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수많은 X-ray 판독 중에서도 진단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정상과 거의 흡사한 미묘한 골절, 그리고 환자가 호소하는 임상증상을 토대로 세부검사(ex,CT)까지 촬영하여 확인해야 하는 골절 사례는 진료현장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놓치기 쉬운 병변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쉽게 찍을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X-ray 사진 판독이라는 데에 모든 의사들이 동의한다.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골절은 일례에 불과하다. 영상학적 진단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질병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놓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이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닌, 바로 환자이다. 쓸모없이 투입되는 의료비용은 들쭉날쭉이라도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쳐 애꿎은 고생만 감당할 환자들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

X-ray,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물리학적 특성상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의 위험을 동반한다. 환자에게 피폭의 피해는 최소로 하면서 적절한 검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들이
수많은 질병들을 놓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이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닌, 바로 환자이다.
쓸모없이 투입되는 의료비용은 들쭉날쭉이라도
적절한 치료시점을 놓쳐 애꿎은 고생만 감당할
환자들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

를 통해 판독하는 것은 의료인의 책무 중 하나이다. 양질의 사진을 얻기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자격은 이를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처럼 모든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에는 오진시의 위험과 책임,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를 간과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며 환자의 질병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언행이다.

면허권의 문제,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부재

생명을 다루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국가는 면허 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다. 면허는 직역간의 이익관계를 따지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여 약속된 것이고, 따라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안전망에 따라 생명의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기에, 면허의 권한은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또 소중히 다뤄져야 한다.

또한 면허제도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면허권을 가진 자에게 제한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장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를 경제

정치인, 정부관료,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은 의료면허를 의료시장의 확대를 막는 장애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면허권을 허물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의 확대와 경제유발효과에 따른 이익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어떠한 경우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빌미로 경제를 논하여선 안 된다.

성의 원리에 따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권을 뒤로 한 시선이기에 납득이 도무지 가지 않지만, 현실은 좀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의료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정부관료,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기업은 이를 염두에 두어 의료시장의 확대에 대한 장애물로 의료면허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한다. 면허권을 허물어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의 확대와 경제유발효과에 따른 이익을 노리는 그들의 의견에 편승하여 당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거라면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의 문제에 해당한다. 어떠한 경우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빌미로 경제를 논하여선 안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다른 한의학에 배운 이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절대 영상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병을 평가하지 않는다. 환자의 호소하는 임상증상과 판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자의 최종진단을 내리는

것이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진단 방법이다.

환자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면허의 직능을 넘어선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요구하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결국 부정확한 진단과 고가의 한약 판매로 이어질 것이기에, 이는 의료인으로서의 명백한 도덕적, 법률적 책무위반이다.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

과학적 소양을 교육 받은 세대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 시대에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는 해를 거듭하여 낮아지고 있어 한의학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나온 대책이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아닐까 생각한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변화를 추구한다면, 한의사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장난은 그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의사들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인한 혼란은 불가피한 희생양을 양산할 것이고, 그 희생양은 버젓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될 것이다.

상처 입은 의료는 우리의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한 채 한 직역의 이기만을 위한 주장을 묵과할 수 없다. 올바른 의료계를 위해서라도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건강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나갈 때에 이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